

고려인 독립투사 후손 어린이들의 ‘국적 넘은 하모니’

고려인마을 어린이 합창단, 서울 예원문화센터 ‘코리안 페스티벌’ 특별 출연



광주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이 13일 서울 강서구 예원문화센터 스카이아트홀에서 열린 ‘코리안 페스티벌 2026’에 특별 출연했다. 합창단원들이 무대에 올라 리허설을 하는 모습.

〈광주고려인마을 제공〉

2017년 창단…국적·배경 달라도 ‘고려인’ 정체성 공유 음악으로 소통
“고려인 역사는 우리의 역사”…‘동요 메들리’·‘아름다운 세상’ 등 선보여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색색의 중앙아시아 전통 의상을 갖춰 입은 아이들이 무대 위에 나란히 선다.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서로 다른 언어로 살아온 시간, 서로 다른 나라에서 견너온 기억들이 한 박자씩 맞물리며 하나의 화음을 이룬다.

광주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이 13일 오후 7시 서울 강서구 예원문화센터 스카이아트홀에서 열린 ‘코리안 페스티벌 2026’에 특별 출연했다.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쿠클공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동향(同響): 같은 울림’을 주제로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무대에 오른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은 노래를 통해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 회복과 한국 전통 보존·전파를 위해 지난 2017년 창단됐다. 독립투사 후손 4~5세 자녀 등 26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기자는 공연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광주전료소 1층 연습실을 찾았다. 이날 연습에는 15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아이들은 응기종기 모여 가사와 동선을 맞추며 노래에 몰두했다.

“만나면 만리타향에서도 우리는 우리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 속에 우리의 얼과 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어린이합창단이 선보인 곡은 창작 뮤지컬 ‘나는 고려인이다’의 넘버 ‘동요 메들리’, ‘우리말 교육’과 박학기 작자·작곡의 ‘아름다운 세상’이다. 아이들은 한 글자 한 글자 가사에 집중하며 노래하고, 팔을 크게 움직이며 율동을 맞췄다. 연습이 끝난 뒤에도 “이 부분에서 언제 돌아야 할까?”를 놓고 의견을 나누며 동작을 반복했다. 대회에는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자연스럽게 섞였다.

어린이합창단의 단장이자 지휘자인 조정희 호남대 교수는 “서로 다른 국적과 배경을 지녔지만 ‘고려인’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공유한 아이들이 음악으로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합창단을 설명했다.

합창단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다양한 출신의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다. 언어 장벽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조 교수는 “통역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두 언어에 모두 익숙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리가 됐다”며 “처음에는 서로 낯설었지만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 조금씩 가까워졌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음악의 힘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초창기 연습 과정 역시 쉽지만은 않았다. 무대를 즐기는 아이들이 모인 일반적인 어린이합창단과 달리, 낯선 환경에 적응하던 고려인 아이들은 목소리를 내는 일부터 부담스러워했다. 조 교수는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말자’,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달래며 연습과 무대를 이어갔다”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 스스로 변화를 느끼고, 점차 무대를 즐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는 소극적이고 자기 표현이 어려운 아이들도 노래를 할 때만큼은 표정과 목소리가 달라진다”며 “그 변화를 지켜보는 시간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덧붙였다.

합창단에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광주에 정착한 아이들도 있다. 조 교수는 “밝아지길 했지만 어떤 아이들은 여전히 내성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쓰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창단 활동과 공연을 통해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에서 안도감도 느낀다”고 했다.

합창단이 전환점을 맞은 것은 2024년 곡성에서 열린 ‘심령전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를 통해서다. 조 교수는 “대회 준비 과정에서 목표를 세우고 반복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이 크게 달라졌다”며 “자신이 실수하면 팀에 영향을 준다는 걸 경험하면서 책임감과 집중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합창단은 이 대회에서 동상을 받았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아나니타(11) 양은 합창단 활동을 통해 가수를 꿈꾸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혼자 할 때는 떨리지만 친구들과 같이 노래하면 용기가 난다”며 “무대에 서도 떨리지 않고 노래하는 게 재미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고려인의 역사는 곧 우리의 역사”라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이 아이들이 우리의 과거 이자 현재, 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이 공연을 앞두고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광주고려인마을 제공〉



〈광주일보 DB〉

광주 동구 자산2동 ‘다복마을 도서관’의 모습.

책과 놀고 시로 배우는 겨울방학

광주 동구, 도서관·시인의 집 등서 프로그램

선착순 모집.

동구 관내 도서관, 시인의 집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의 교실이 된다. 광주 동구가 인문학 전시와 독서, 예술 체험을 아우르는 겨울방학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동명동에 위치한 동구인문학당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인문학 수업이 오는 2월 19일까지 진행된다. 강의의 주제는 ‘훈장 선생님이 풀어주는 이야기-좀 알자, 쓰자, 고사성어’. 김광남 회순 인문학교육협회장이 강사로 나서 새옹지마(塞翁之馬) 등 고사성어 속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다. 동구 거주 초등학생 대상, 21명 선착순 모집.

지산동 시인 문병란의 집에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어린이 시인학교’가 열린다. ‘시야, 어디야? 너 보려 또 앉아’를 주제로 한 이번 프로그램에는 동시 시인 문분, 진현정 등이 참여해 아이들과 함께 시를 읽고 쓰는 시간을 만든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눈 뒤 시를 쓰고, 퇴고 과정을 거쳐 작품집으로 엮는 것이 특징이다. 오는 16일까지 전화 접수, 회차별 10명

자세한 내용 확인과 참가 신청은 동구 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역 문예지 ‘문학춘추’ 겨울호 나왔다

지역에서 발간되는 문예지 ‘문학춘추’ 겨울호(통권 133호·시진)가 나왔다.

이번 호는 특집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를 주제로 문인들의 짧은 글을 살았다. 김대현, 김만선, 김철교, 박두순, 임원+식, 전원범, 최원현 작가의 새해를 맞는 단상이 독자들을 맞는다.

또 다른 특집으로 표인주 전 전남대 박물관장의 ‘시인의 집’은 기억과 일상의 삶에서 비롯된다’를 만난다.

표 관장은 “일반적으로 복이 순환구조로 실현되지만 구심력 구조 속에서 통합되어 큰 복이 되기도 하고 원심력 구조 속에서 각각의 복으로 흩어지기도 한다”며 “그런가 하면 복이 삶의 태도와 욕망에



따라 흔재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특집 ‘수필’, 그 발전 모색·문예로서의 수필은 시인인 이준배 주간이 글을 썼다. 이 주간은 “수필, 그 속성은 자유분방하다. 만물은 조화로 서 아름다움을 이룬다.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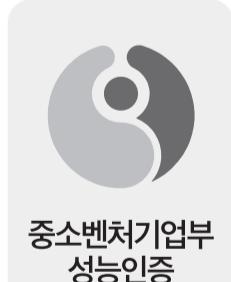
비 없는 조화로움이 수필을 문예로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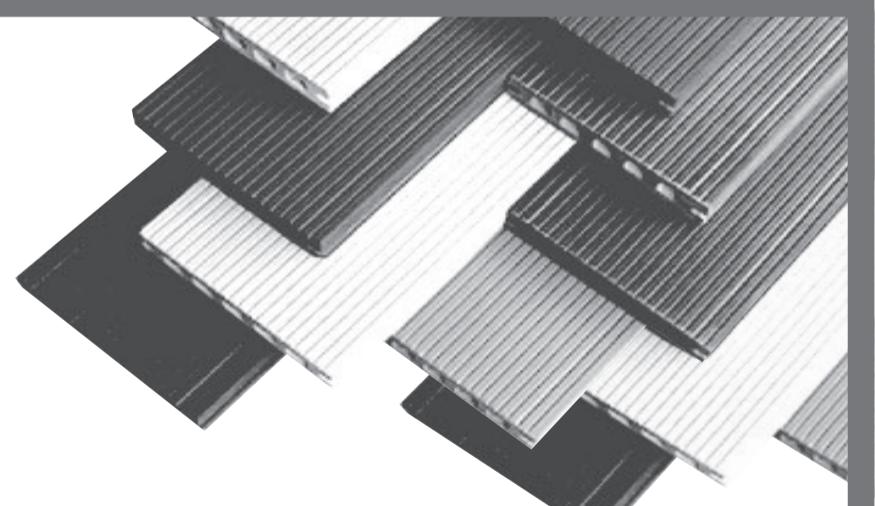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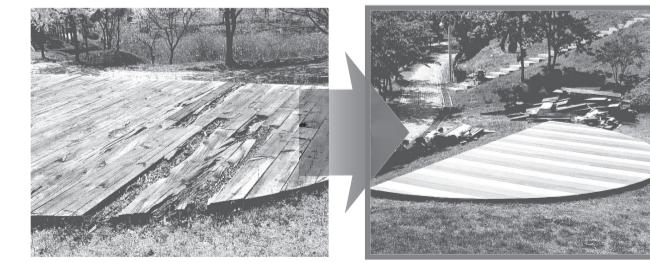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